**연중 제13주일(2018년 7월 1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텔레비젼이나 신문 광고에서 ‘before’ ‘after’ 사진이 종종 나오죠? 다이어트 식품이나 운동 기구 판매 광고, 혹은 어떤 교정 치료 광고 등에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before’와 ‘after’ 사진.   
‘before’ 사진을 보면 진짜 볼품없고 형편없는 모습의 사진이 나옵다. 반면에 ‘after’ 사진은 그야말로 굉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before’ 와 ‘after’ 확 달라지죠. ‘before’와 ‘after’가 많이 달라져야 광고 효과가 큽니다.  
  
        오늘 미사의 독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before’ 와 ‘after’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before’ 와 ‘now’ 그리고 ‘after’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1독서, 지혜서에서 말합니다.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 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존재하라고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이롭고 그 안에 파멸의 독이 없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처음에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 참 아름답고 좋았다.” 이것이 우리의 첫번째 장면, ‘before’의 모습 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평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맛보게 된다”고 지혜서가 전합니다. 이것이 두번째 장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진 인간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after’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여인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냥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의 모습, 하느님의 본성을 닮은 원래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이 구원의 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프고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들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주 감동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야기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죠. 정말 괴로운 병에 걸린 겁니다.   
  
        유다인들의 율법에는 정결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을 탄 사람이 새롭게 하느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정화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율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시체에 닿은 사람은 7일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재물을 바치고 정결예식을 치러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격리 되었다가, 몸이 다 낫고 난 후에 정결예식을 치르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성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고, 생리가 끝난 다음에 정결예식을 치르고 부정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하혈병에 걸린 이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으로 죄인 취급을 당해왔던 겁니다. 장장 12년 동안이나. 그러니 이 여인이 병을 낫게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 여인은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아마, 재산도 다 날리고, 이웃이나 가족으로부터도 완전히 소외당하고, 멸시받고, 집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그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마침, 소문으로 듣던 그 청년 예수가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더러운 여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뒤를 따라 가서 뒤에서 몰래 옷에 손을 댑니다.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하는 믿음과 희망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아주 끝내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 마디를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더럽고 불결하고 재수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가족들도 다 외면하고 동네에서도 쫓겨난 이 여인을, 예수님은 “딸아!”하고 부릅니다. “딸아!” “이스라엘의 소중한 딸아!” “하느님의 소중한 딸이여!”하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부정한 계집이 어따 손을 대!” 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딸아!”하고 부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그냥 끝나 버립니다. 12년 동안이나 앓던 병이 싹 낫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한마디입니까! “딸아!” 유다인 남자들은 자기 친 딸에게도 “딸아!”하고 다정하게 불러보는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다 남자들은 동네 지나가다가 딸을 만나도 그냥 모른척 하고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딸아!”하고 부릅니다.  
  
        이어서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장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장례를 미룰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던 그 딸아이를 살려 냅니다.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참 놀랍고 뜨거운 장면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 손이나 몸이 닿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고, 정결예식을 치러야만 그 부정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에 꼭 필요한 사람만 시신에 손을 댈 수 있었지, 보통은 아무도 시신에 손을 댈 수도 없었고, 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망설임없이, 이 죽은 아이의 손을 덜컥 잡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율법의 형식적인 규정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말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산 사람에게 대하듯이 말합니다. “일어나거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프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다시 고쳐주십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after’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여라.”  믿으면 믿는데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고, 그 분을 믿으면 모든 것이 그분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립니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